

## 자전문학 용어의 정립을 위한 시고(試考)\*

박진성\*\*

<차례>

1. 서론
2. 자서전과 자전
  - 1) 자서전의 개념과 용례
  - 2) 자전의 개념과 용례
  - 3) 자서전인가? 자전인가?
3. 자기서사와 자전문학
  - 1) 자기서사의 개념과 한계
  - 2) 자전문학의 의미와 특징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작품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자전’과 ‘자전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 본 것이다.

본고는 우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서전과 자전 용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그 어원과 기본개념, 용례와 범주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용어의 전통, 포용력과 융통성, 동아시아의 보편적 용례 등을 근거로 자서전보다 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이어서 최근에 확장되고 있는 자전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자기서사와 자전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기서사는 자전을 비롯해 수필, 편지, 일기 등 자기를 대상으로 한 양식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자전적 글쓰기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 용어로서 자전의 개념

\* 이 논문은 2020년도 한국고전연구학회 춘계온라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의에 앞서 당시 토론을 맡아주셨던 한새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사후연구원

과 유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전문학은 자전의 기본적 성격을 따르면서도 문학의 범주가 넓은 한문학의 특수성에 따라 여러 양식들을 포괄할 수 있기에 자전의 상위개념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자전과 자서전이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자서전을 문학텍스트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고려하면 자전문학 용어는 현대문학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 자전문학, 자서전, 자전, 자기서사, 자전적 글쓰기, 전기(傳記)

## 1. 서론

작자가 자기 일생을 기록한 자서전이라는 양식은 일반적으로 서양 근대 문학의 소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자서전은 서양문학이나 현대문학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서전처럼 작자가 자기 일생을 회고하며 서술하는 양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과거 동아시아 한문학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자서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자전(自傳)’이라는 용어가 8세기부터 등장하였으며, ‘자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대체로 자서(自敍)나 자서(自序), 자술(自述) 등의 용어를 사용해 자신의 일생을 기록하였다.<sup>1)</sup> 뿐만 아니라 묘지명, 연보, 필기, 잠명, 한시 등 한문학의 다양한 문체를 빌어 자신의 생애와 사유를 기술하였다.<sup>2)</sup> 일종의 한문학

- 1) 가와이 코오조오 지음·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17쪽.
- 2)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양식은 크게 산문형, 운문형, 산문·운문 중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산문형에는 자전, 자서(自序·自敍), 자찬묘지, 자찬연보, 자경(自警), 자전적 필기잡록, 자전적 서간 등이 있으며, 운문형에는 자술시, 술회시, 자만시(自輓詩) 등이 있고, 산문·운문 중간형에는 자찬(自贊), 자잠(自箴), 자송(自頌), 자명(自銘), 자제문(自祭文) 등이 있다. (이상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양식 및 대표 작품에 대해서는 심경호, 『선인들의 자서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가서, 2010, 623~648쪽과 박진성, 『조선후기 자전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35~44쪽을 참조하기 바라며, 곽등봉(郭登峰)의 『역대자서전문초(歷代自敍傳文鈔)』(臺灣商務印書館, 1965年版)와 두연철(杜聯喆)의 『명인자전문초(明人自傳文鈔)』(藝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은 한자와 유교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문화권의 전통적 사유와 글쓰기 방식에서 탄생한 것으로서 현대의 자서전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2천 년대를 전후로 우리 학계는 서양 자서전과 차별화 된 한문학의 자기일생 서술 작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문학의 자서전적 작품들이 빛을 보게 되었고, 이와 함께 그 창작배경과 서술적 특징, 작품에 내재된 자아상 및 의식세계 등이 파악되었다.<sup>3)</sup>

文印書館, 1977.) 등을 통해서도 여러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표적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개별 작품 연구 제외)

김종섭, 『中國古代文學의 自傳에 關한 研究』, 『중국문학』 26, 한국중국어문학회, 1996. ; 이은식, 『고려시대 자서전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 고은, 『士大夫 自傳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승호, 『고려佛家의 自傳의 글쓰기와 그 양상: 書信 및 碑銘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안대회, 『조선 후기 自撰墓誌銘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31, 한국한문학회, 2003. ; 심경호, 『내면기행: 선인들, 스스로 묘비명을 쓰다』, 이가서, 2009. ; 심경호(2010), 위의 책. ; 박진성, 『조선 후기 自傳의 글쓰기 연구 -17·18세기 산문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안득용,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自傳의 敘事의 창작경향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51, 2013. ; 『조선후기 자서전의 특징적 局面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56, 한국한문학회, 2014. ; 정우봉, 『조선 후기 自撰年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9, 한국한문학회, 2015. ; 임준철, 『支流와 還流: 自傳文學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自挽詩』, 『민족문화연구』 7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 안득용, 『필기체(筆記體) 자기서사(自己敘事)의 자기형상(自己形象)과 자기변명(自己辨明): 이식(李植)의 『서후잡록(敍後雜錄)』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 안득용, 『자탁전(自托傳)의 각 계열에서 보이는 자기인식의 형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71, 한국한문학회, 2018. ; 박진성(2019a), 위의 논문. ; 『17세기 동아시아 자전문학의 특징적 국면(I)-창작 배경 및 자아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75, 한국한문학회, 2019b. ; 안득용, 『書簡體 自己敘事의 주요 양상과 自己形象』, 『우리文學研究』 62, 우리문학회, 2019. ; 『한국 고전 자기서사 연구』, 태학사, 2019. ; 임준철, 『나의 장례식(자만시, 나의 죽음 소유하기)』,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여전히 미흡한 점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한문학의 자서전적 작품이나 양식을 발굴하여 그 특징과 가치를 구명하는 데에만 치중해왔다. 반면에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 용어나 연구 영역의 정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 소개와 분석에 앞서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의 기본적 개념이나 대상 자료의 범주를 밝히고는 있지만, 문제는 그 용어나 개념이 너무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자기서사, 자서전, 자전문학, 자전적 글쓰기, 자전적 서사 등 연구자마다 제각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연구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나 대상 자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여러 용어를 혼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한문학 작품만의 고유한 특색을 드러내고 해당 연구의 영역을 확립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작품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합의된 용어를 마련하고 그 내포와 외연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련한 개념이나 용어가 현대의 자서전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최종적으로는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개념어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문학의 자서전적 작품을 지칭하는 다양한 개념어 가운데 ‘자전문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면서 그 타당성 및 현대문학과와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한문학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자서전, 자전, 자기서사 이 세 용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전문학 용어의 성립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고 이어서 해당 양식의 장르적 특성 및 한문학의 특수성 등을 바탕으로 자전문학의 성격과 범주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용어의 유용함과 현대적 활용 가능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기실, 자전문학이라는 용어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다. 하지

만 이 용어 자체에 집중하여 기본적 개념과 문학적 특성, 범주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는 거의 없었고, 이와 인접한 용어들을 포괄적으로 조감한 연구 또한 없었다.<sup>4)</sup> 이런 점에서 본고의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자서전과 자전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작품이나 양식을 일컫는 하나의 합의된 용어를 마련하지는 이 논문의 1차적 목적에 따라 본 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텍스트를 지칭하는 기본적 개념으로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부터 따져보고자 한다. 이는 자전문학 용어의 정립을 위한 전초과정이기도 하다.

앞서 제시한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자서전, 자전, 자기서사 이 세 용어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 정의하는 세 용어의 개념은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그 개념이 비슷하다고 해서 용어의 쓰임까지 닮은 것은 아니다. 용어의 성립 배경이나 대상 자료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서사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를 대상으로 삼은 자서전이나 자전, 회고록, 일기, 수필, 편지 등이 전부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자전이나 자서전과 같이 논하기에는 층위

4) 한문학의 경우, 가와이 코오조오의 『중국의 자전문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서양문학의 자전(자서전)에 준하는 중국 한문학의 자전적 작품들을 자전문학이라 일컬었다. 다만, ‘자전=자전문학’이라는 인식 하에 한문학 자전의 의미와 특징만을 구명하고 문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깊게 논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최근 박사논문(2019a)에서 한문학 자전의 개념과 문학적 특성을 종합하여 자전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밝혔지만, 이 또한 자전의 개념 정의에 치중된 감이 있다. 현대문학에서는 문지희의 연구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바 있다.(『자전문학, 그 혼종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외국문학연구』 4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2.) 이 논문에서 자전문학은 현대 자서전의 다양한 글쓰기 양상과 문학적 관점을 반영한 술어로서 채택되었지만, 자서전 또는 자전적 글쓰기와 구분 없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가 맞지 않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보다 상위개념인 자기서사를 배제하고 같은 층위에 있는 자서전과 자전, 이 두 용어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1) 자서전의 개념과 용례

심경호는 『선인들의 자서전,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시와 산문을 망라해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전근대시기의 자서전적 글쓰기 또는 중세의 자서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서전을 자신의 일생 가운데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삼아 자기가 겪은 일들을 서술해서 자신의 삶의 궤적을 고백하고 자신의 인성 형성의 과정을 성찰하는 시와 산문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그는 자서전이라는 말이 한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는 아니라고 말한다.<sup>5)</sup> 그의 말처럼 자서전이라는 용어는 현대어에 가깝다.

본디 자서전은 서양의 ‘Autobiography’를 번역한 용어이다. 서양에서 ‘Autobiography’라는 단어는 19세기를 전후하여 처음 등장하였고,<sup>6)</sup> 18~19세기 낭만주의의 유행과 더불어 고유한 문학양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7)</sup> 우리 문학사에서 이 양식은 20세기 초 서양문학의 유입과 함께 본격 알려

5) 심경호(2010), 위의 책, 5쪽·625쪽.

6) 로버트 폴켄플릭(Robert Folkenflik)의 *The Culture of Autobiography*(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에 따르면 1786년에 ‘Autobiographical Narrative’라는 형용사형이 최초로 나타났고, 이후 1797년에 영국 정기 간행물 *The Monthly Review*에서 처음으로 ‘Autobiography’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으며, 1809년 영국작가 로버트 수디(Robert Southey)에 의해 이 용어가 문학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p.1.)

7) 물론 19세기 이전에도 종교적 고백록이나 회상록처럼 자기 일생을 기술한 작품들이 무수히 존재하지만, ‘Autobiography’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종교적 참회나 영웅적 신화가 아닌 순수 개인에 관한 사적인 글쓰기가 하나의 양식으로 정립된 것은 18세기 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근대적 자서전의 기원은 18세기 말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지은 『고백록(Confessiones)』에 두고 있다.

졌는데, 한자식 표현을 빌어 ‘자서전’이라고 번역하여 소개되었다.<sup>8)</sup>

심경호의 지적처럼 과거 한문학에서 자기 일생을 서술한 작품을 두고 자서전(自敍傳 또는 自序傳)이라 칭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sup>9)</sup> 오히려 한문학의 엄격한 문체 구분에 따라 자서(自敍)나 자서(自序), 자전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홍명희의 『자서전』은 작자가 전통 한학에 조예가 깊었지만, 그 제목을 자서나 자전이라 하지 않고 자서전이라 하였다. 그 작품이 루소나 니체 등 서양인의 자서전을 참조하여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자서전문초』를 간행하여 중국 전한부터 민국 시기까지 140여 편의 자전적 작품을 선집한 중국의 곽등봉 또한 이 책의 서문에서 서양 근대 자서전문학이 크게 유행하는 당대의 신평조를 반영하여 이 책을 엮은 것이라고 하였다.<sup>10)</sup>

이처럼 자서전이라는 용어는 서양의 ‘Autobiography’ 유입과 함께 만들어진 신조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서양문학에서 비롯된 새로운 유형의 자전적 작품이 유입되자 이를 전통적 자서 또는 자전과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sup>11)</sup>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자서전(Autobiography)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20세기 자서전 이론가인 웨인 슈마커(Wayne Shumaker)는 자서전에

8) 우리나라에서 자서전 용어의 등장은 1920년 전후로 추정된다. 1920년 6월 1일자 동아일보에 ‘自敍傳이나 懺悔錄을 自我廣告를 目的으로’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후 1929년 6월 임격정의 작가 홍명희(洪命熹)가 잡지 『삼천리』에 『자서전』을 연재하면서 자서전이란 용어가 공식화 된 것으로 짐작된다. (임순철, 『자서전, 나와 세상의 기록』, 한국기록연구소, 2016, 30~31쪽.)

9) 근대 이전 중국문학에서 자서전이라 한 작품은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세기 문인인 신작(申錫)이 자신의 자찬묘지를 『자서전(自敍傳)』이라 하였고, 19세기 여항문인 유최진(柳最鎭)이 자신의 전기를 『자서전(自序傳)』이라 이름한 바 있다. 또 불가의 범해(梵海)가 자기 문집의 서문에서 일생 행적을 기록하며 『자서전(自序傳)』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이 세 작품만 확인된다.

10) 郭登峰(1965), 위의 책, 『編者的話』.

11) 박혜숙·최경희·박희병(2002), 위의 논문, 328쪽.

대해 ‘개인에 대한 진실한 기록으로 공인된 것이며, 그 사람 자신에 의해 쓰였고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sup>12)</sup> 프랑스의 필립 르죈(Philippe Lejeune) 역시 18세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자서전을 정의하면서 ‘한 실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개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인성(人性)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산문으로 쓰인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라고 하였다.<sup>13)</sup> 두 사람은 자서전을 개인서사와 사실성에 초점을 맞춘 기록으로 보면서 자서전과 그 인접한 기록들을 구분하여 살폈다. 특히 필립 르죈의 경우, 자서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산문형 이야기, 과거 회상적 시점, 개인의 삶과 인성의 역사, 저자·화자·주인공 간의 동일성이라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규약을 제시하면서 회고록, 전기, 사소설, 자전적 시, 내면일기, 자기 묘사 이야기나 수필 등은 자서전과 유사한 양식이지만 그 조건에서 불충분한 점이 있기에 자서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sup>14)</sup> 이는 달리 말하면 자서전은 그 인접 양식과 엄격히 구분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러시아의 문학이론가인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이 작품의 작자와 작품 속 주인공의 융합과 분리를 기준으로 고백록과 자서전을 구분한 바 있으며,<sup>15)</sup> 독일의 게오르그 미슈(Georg Misch)는 작자와 주인공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작자가 단지 관찰자로서 자신(주인공)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품을 회고록이라 하고, 증언자로서 자신에게 깊이 몰입한 작품을 자서전이라 하였다.<sup>16)</sup>

12) Shumaker Wayne, *English Autobiography: Its Emergence, Materials, and Fo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4, p.106

13) 필립 르죈 지음·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17~33쪽.

14) 필립 르죈 지음·윤진 옮김(1998), 위의 책, 17~20쪽.

15) 게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지음,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381~382쪽.

16) Misch Georg, E.W. Dickes translation, *A History of Autobiography in Antiquity: Part I*, London Routledge, 1998, p.p14~15.

이상 자서전 연구 초기에 이루어진 자서전과 인접 장르의 구분 짓기는 자서전 고유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기여한 바가 크지만, 현대 자서전의 개념과 범주가 확장됨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후대의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서전의 다면성과 혼종성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윌리엄 스펜지먼(William C. Spengemann)은 자서전은 기본적으로 전기(傳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자아를 반영한 모든 형식의 글쓰기가 자서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현대의 자서전을 역사적 자서전과 철학적 자서전, 시적 자서전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 폴 제이(Paul L. Jay)는 사실적 자서전과 허구적 자서전[Autofiction]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였고, 제임스 올니(James Olney)는 인간의 모든 저작은 작자의 자아가 표출된 자서전이라 하면서 자서전의 정의나 장르 규정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였다.<sup>17)</sup>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오늘날의 자서전은 그 개념과 범주가 크게 확장되어 역사적 기술, 참회록, 회고록, 자전적 소설, 내면 일기, 자전적 시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장르로 탈바꿈하였다. 이와 함께 자서전에 내재한 사실성, 객관성, 역사성에 주목했던 과거와 달리 작품의 재구성(기억의 재현)과 허구성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서전을 문학의 영역에서 이해하려는 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외에도 텍스트가 아닌 미디어

17) Spengemann William C, *The Forms of Autobiography*, New Haven : Yale UP, 1980, p.168. ; Jay Paul L, *Being in the Text: Self-Representation from Wordsworth to Roland Barthes*, Ithaca & London : Cornell UP, 1984, pp.16~17. ; Olney James, *Metaphors of Self*,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1972, p.3. (이상 현대 자서전의 장르의 확장과 변화와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박령, 『텍스트 속의 삶: 서구 자서전문학 이론 연구』, 『영어영문학』 42, 한국영어영문학회, 1996. ; 이가야, 『자서전 이론에 대한 몇 가지 고찰: 필립 르죈의 이론과 그 반향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3,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8. ; 류은희, 『자서전의 장르 규정과 그 문제: “역사기술”과 “시”로서의 자서전』, 『독일문학』 84, 한국독어독문학회, 2002. ; 문지희(2012), 위의 논문. ; 채여매, 『자서전의 이론과 변천』, 『독어교육』 76, 한국독어독문학회교육학회, 2016. 등을 참조하였다.)

매체나 예술과 결합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자서전까지 등장하면서 문화의 한 영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처럼 현대의 자서전은 포용과 변형의 과정을 통해 장르의 경계나 개별적 특성은 약해지고 개방성과 혼종성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용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다양한 장르와 혼종적 형태를 의식한 ‘Cultural Autobiography’, ‘Autobiographical Writting’, ‘Autobiographical Narrative’, ‘Nouvelle Autobiographie’, ‘Self-Narrative’와 같은 용어들이 자서전의 대안어로서 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자전의 개념과 용례

자전은 오늘날 ‘Autobiography’의 또 다른 번역어로서 자서전과 동일한 의미에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용어의 기원이나 전통 등을 따져보면 자전과 자서전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동아시아 문학사에서 자서전이란 단어는 그 역사가 한 세기에 지나지 않지만 자전은 일찍이 중당(中唐) 무렵 육우(陸羽)의 『육문학자전(陸文學自傳)』에서 그 용어가 최초 사용된 이래 19세기 말 중국인 왕도(王韜)의 『도원노민자전(弢園老民自傳)』과 조선인 김창희(金昌熙)의 『계원퇴사자전(溪園退士自傳)』, 일본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후쿠옹자전(福翁自傳)』에 이르도록 천 년 넘게 동아시아 문학사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다.

여기에서의 자전은 원래 인물의 일생을 기록하는 전 양식의 한 종류로서 작자가 자신을 입전 대상으로 삼아 자기 일생을 서술한 작품을 가리킨다. 그런데 전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작성하는 것이라 여겨져 왔다. 그래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러므로 작자 자신

18)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55쪽.

을 입전시킨 자전은 어찌 보면 전의 일반적 성격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열악하여 자신의 삶을 기록해 줄 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자기 스스로라도 전을 지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자전 작가는 대부분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고 제3자나 가상의 인물에 기탁하여 우회적으로 자신의 일생을 말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은 전 가운데 탁전으로 분류하여 자탁전(自托傳)이라 부르기도 하는데,<sup>19)</sup> 한문학 자전들은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탁의 방식을 사용한 자전의 시초는 동진(東晉)시대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으로 육우의 자전보다 더 오래되었다. 도연명은 소탈하면서도 대범한 성격을 지닌 오류선생이라는 인물의 삶을 서술하면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지지 않고 살아가고픈 자신의 이상을 투영하였다. 이처럼 기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기술하는 방식은 이후 자전 창작에 있어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자전 가운데에는 기탁의 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출신, 일생을 사실대로 써내려간 작품도 존재한다.<sup>20)</sup> 이러한 작품들은 자탁전의 대세적 흐름 속에서 일종의 변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종래의 양식으로는 표출할 수 없었던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사실적 서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자전의 진술 방식은 크게 고정된 자아 형상을 두고 기호 및 이상 등을

19) 조수학은 『韓國의 托傳과 假傳』(영남대학교출판부, 1987)에서 탁전을 정의하며 작자 자신의 심회, 사상, 취미, 인생관, 처세관 등을 어떤 제3의 인물에 기탁하여 서술하는 것이 탁전이며 그 가운데 어떤 가상의 인물에 작자 자신을 은유한 자서전적인 것을 자탁전(自托傳), 가상 또는 실제인물의 특성에 작자의 사상이나 처세관 및 주장 등을 우의한 것을 의탁전(意托傳)이라고 하였다.(44쪽.)

20) 중국의 경우 중당시기 등장한 육우의 『육문학자전』과 유우석(劉禹錫)의 『자류자자전(子劉子自傳)』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후기에 등장한 유한준(兪漢雋)의 『자전』, 유취진의 『자서전』, 황오(黃五)의 『자전』이 대표적이다.

서술하는 방식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인식의 변모 과정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은 인물의 구체적 행적은 배제된 채 주인공의 성품과 삶의 단면만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육우의 『육문학자전』 같은 작품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면서 삶이 변화한 계기와 변화 전후의 자아 등을 그려내고 있다.<sup>21)</sup> 자전은 일반 인물전에 비해 작자의 주관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편이다. 그러므로 작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와 현실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 서사의 중심이 달라지고 일대기적 서술이 아닌 비일대기적 서술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자전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작자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삶 전체나 특정 시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과 사유, 감정을 묘사하거나 자아의 변화 양상 등을 기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한문학 가운데에는 전 형태의 자전 말고도 위 개념에 부합하는 작품이나 양식들이 상당히 많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한문학 연구자들은 자전을 본래의 전 양식보다 더 확대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진필상(陳必祥)은 『한문문체론』에서 자전을 자기의 일생 사적을 기술한 전기라 정의하면서 왕충(王充)이 지은 『논형(論衡)』의 『자기편(自己篇)』이나 조비(曹丕)의 『자서(自序)』 같은 글들도 자신의 가계와 일생, 사상 등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자전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가와이 코오조오 역시 『중국의 자전문학』에서 자전의 유형으로서 자서(自序), 자서(自叙), 자찬묘지명, 자전적 시 등을 함께 고찰하였다.<sup>22)</sup>

21) 한국 자택전의 진술 방식에 대해 살핀 안득용은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처럼 시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상과 기호를 밝힌 진술을 정태진술이라 하고, 이와 달리 육우의 『육문학자전』처럼 시간의 축이 개입되어 자아의 변화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을 과정진술이라 하였다.(안득용(2018), 위의 논문.)

22) 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화, 2001, 101쪽.

이러한 자전의 광범위성은 한문학의 특수성 및 전의 장르적 특징에서 기인한다. 한문학은 그 문체가 최대 120여 종에 이를 만큼 매우 다양하지만 문체 간의 유사성이나 인접성이 높아서 수많은 갈래를 다시 몇 개의 부류로 묶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한문학에는 그 문체가 다르더라도 내용이나 형식이 유사한 작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전은 특히나 다른 양식과 결합이 용이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일생이나 사적을 기록하는 다른 양식과 결합하여 전기(傳記), 전지(傳誌), 전장(傳狀)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좌전』과 같은 국가의 역사에서부터 『사기』의 각종 인물 열전, 그리고 『최고운전(崔孤雲傳)』 같은 소설에 이르기까지 전은 매우 다양한 유형을 띠는 문체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물전의 말미에는 운문의 찬이 삽입됨으로써 산문과 운문이 결합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자전은 상위 양식인 전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유형 역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자전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일반의 전기와 달리 사전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자경이나 잠명 같은 자성적(自省的)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sup>23)</sup> 즉, 자전은 인물의 일생을 기록하는 전 양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서술 방식이나 유형에 있어서 일반의 전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전은 첫 머리에 말한 것처럼 동아시아의 근현대문학에서 자서전과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자전적 글쓰기나 자전소설 같은 용어들이 고전과 현대를 불문하고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서양 자서전에 영향을 받은 근현대의 작품을 자전이라 칭한 경우도 많다.<sup>24)</sup> 여기에서의 자전은 곧 현대의 자서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23) 예를 들어, 고려시대 최해(崔澹)의 『예산은자전(猓山隱者傳)』이나 조선시대 이여빈(李汝鱣)의 『취사노옹전(炊沙老翁傳)』, 안정복(安鼎福)의 『영장산객전(靈長山客傳)』과 같은 자전은 자기 일생의 시련 과정을 서술하면서 삶에 대한 성찰과 회한의 심정을 전하고 있다.

24) 대표적 예로 20세기 초 중국의 곽말약(郭沫若)은 아우구스티누스·루소·피테·톨스토

이상과 같이 자전이라는 용어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동아시아 문학사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3) 자서전인가? 자전인가?

이상으로 자서전과 자전의 용어의 개념과 특징, 용례 등을 살펴보았다.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작품들을 지칭함에 있어 자서전보다는 자전 용어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서전은 20세기 초 서양문학의 수용과 함께 만들어진 신조어인 반면에 자전은 동아시아에서 중세부터 사용해 온 전통적 용어이다. 따라서 그 기본 개념의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를 버리고 굳이 신조어를 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전통적 자전 가운데에는 현대의 자서전 개념에 부합하는 작품도 적지 않다. 육우의 『육문학 자전』이나 유우석의 『자류자자전』 같은 과정진술형의 자전은 작자가 경험한 삶의 굴곡들이 시간의 좌표에 입각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 비록 작품의 편폭이 크진 않으나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기 일생의 변화들을 자세히 기록한 점에서 이 작품들은 현대의 자서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자전은 창작의 바탕에 타인에 의한 기술을 중시하는 전의 특성을 넘어설 만큼 강한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서술 방식에서는 기탁(寄託)과 직서(直敘)의 방식을 아우르되 어떤 서술 방식이라도 결국에는 작자와 서술 대상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용

---

이 등 서양인이 지은 자서전을 의식하여 지은 자신의 일대기를 두고 『말약자전』이라 이름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의 심종문(沈從文)이나 육달부(郁達夫)의 역시 각각 『종문자전』, 『달부자전』을 남겼다. 일본의 경우, 총 23권으로 된 『일본인의 자전日本人の自傳』이라는 책을 통해 근대 이전과 이후 일본인의 자전적 작품을 망라한 바 있다. (鹿野政直·佐伯彰一 監修, 『日本人の自傳』(全23卷·別卷2), 平凡社, 1981~1982.)

면에서는 삶의 단면에 집중하거나 일생 전반을 아우르는 서술이 공존함으로써 작자의 의식세계 및 자아의 변화과정 등을 고루 확인할 수 있다. 자전의 이러한 특성들은 현대 자서전의 창작 배경 및 다양한 글쓰기 양상과도 선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전이라는 용어 속에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가 함께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자전은 그 다양한 작법과 형식에 따라 자기 일생을 기록한 다른 양식들을 포용할 수 있다. 물론 현대의 자서전 또한 여러 양식을 포괄한 개념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산문형의 사실적 서술과 작자·화자·주인공의 일치를 중시하는 경향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반면에 자전은 애초부터 다양한 유형을 지닌 양식으로서 여타 자기 일생 서술 양식과 접목되는 부분이 많다. 자전 가운데 자기 일생을 사실 그대로 서술한 작품은 자서(自敘) 또는 자지(自誌)에 가깝다 할 수 있으며, 자기 삶의 일면에 주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취향이나 가치관을 집중 서술한 작품은 자서(自序)와 유사성이 있다. 또한 구성에 있어서 자전의 말미에 삽입되는 찬은 대체로 자찬이나 자명의 성격을 지닌다. 심지어 『拙翁전(拙翁傳)』을 지은 최기남(崔奇男)은 자신의 자전 속에 자만시와 자제문을 함께 수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자전의 융통성과 포용력은 서양 자서전에 비해 분명 뛰어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전이란 용어는 같은 한자문화권의 중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범주 또한 전 양식의 하나만으로 특정하지는 않는다. 앞서 살핀 진필상과 가와이 코오조오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의 많은 연구자들은 자전의 기원을 전기문학에 두면서도 여기에 서문, 묘지명, 행장 등이 포함된다고 여겨왔다.<sup>25)</sup> 이처럼 자전은 동아시아 한문학이 공유하

25)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張新科, 『古代自傳文的文學價值』, 『唐都學刊』 8, 1992; 郭英德, 『明人自傳文論略』,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5; 蘇娟, 『中晚明自傳文研究』, 復旦大學碩

는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용어의 전통, 포용력과 융통성, 동아시아의 보편적 용례 등을 근거로 자전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을 따져보았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결국 자전문학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자전문학이라는 용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자전이라는 용어부터 타당성을 획득해야하기 때문이다.

사실, 자전이라는 용어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기탁의 특성을 지닌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이 용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전이라는 양식의 다양한 특징과 광범위한 용례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양식을 대표하는 양식이자 인접 장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적극 사용되기를 바란다.

### 3. 자기서사와 자전문학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작품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자전이 타당하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전의 일반적 유형을 벗어나 편지, 일기, 수필, 시문 등에서도 자전적 작품이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자전의 범주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자전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문학에서 자서전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자서전적 글쓰기(Autobiographical Writing)’나 ‘자서전적 서사(Autobiographical Narrative)’ 등의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것처럼 말이다.

---

士學位論文, 2012. ; 揖斐 高, 『自己イメージの視線 - 林鶯峰の「一能子伝」について-』 『日本文學』 51, 日本文學協會, 2002. ; ヴォルフガング シャモニ, 『日本十七世紀の自伝、その一側面』, 『世界の日本研究』, 2017.

자전이라는 용어가 전이라는 특정 양식을 상기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 서술 양상이 다채롭긴 하지만 운문이나 편지처럼 성격이 다른 글쓰기까지 포괄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전처럼 자기 일생을 서술한 작품들이 문학의 한 영역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연구의 분야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보다 넓은 차원의 학술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한다.

### 1) 자기서사의 개념과 한계

최근 한문학의 자전적 작품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전문학에서 자기서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박혜숙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글쓰기’라고 정의하면서, 자서전은 자기서사의 가장 대표적 양식이며 이 외에도 자전적 소설, 편지, 일기, 수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sup>26)</sup> 안득용은 최근 『한국 고전 자기서사 연구』에서 현대의 자서전에 가까운 한문학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일반적으로 정의된 자전 혹은 자서전보다 넓은 범위를 다룬다는 차원에서 ‘자기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서사를 ‘저자가 자신의 삶 전체 혹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자아의 사유와 감정 및 삼의 지향을 서술하거나 자신의 변모 양상과 변화의 계기가 되는 외부 환경 및 사건을 서술한 서사’라고 정의하면서 자서전 외에 회고록, 수상록, 수기, 수필, 편지, 일기 등이 자기서사에 포함된다고 하였다.<sup>27)</sup>

26) 박혜숙·최경희·박희병(2002), 위의 논문, 327~328쪽. ;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 2002, 10~11쪽.

27) 안득용(2019), 위의 책, 6쪽.

이처럼 자기서사 연구자들은 자기서사를 단일한 장르 개념이 아닌 자기를 대상으로 기술한 다양한 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자기서사는 자전을 비롯해 자전의 성격을 띠는 여타 양식들을 포괄하기에 분명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서사는 서사의 문학적 양식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sup>28)</sup> 즉, 문학 양식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자기와 관련된 일을 진술한 모든 텍스트로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학과 현실의 관계가 긴밀한 한문학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작품이 자기서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기서사의 넓은 범주는 자기서사의 고유성이나 경향성을 수렴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서사 범주에 속하는 자전, 일기, 수필, 편지 등의 양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형화된 글쓰기 방식으로 서술 방식이나 자아의 형상화 양상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일기는 일기대로 편지는 편지대로 각 양식만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전의 기술 시점이 과거의 나에 있다면, 일기는 현재의 나에 있고, 편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서술한다. 또한 수필은 붓 가는대로 쓴다는 의미에 따라 나를 둘러싼 주변에 더 초점이 맞추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라는 용어의 의미와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기술 대상이 자기라는 차원을 넘어 자기서사의 제 유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서사 연구자들도 공감하여 논의에 앞서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박혜숙은 작자가 자기 자신에 관해 진술한 텍스트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자기를 둘러싼 외적 세계 또는 내면의 정서 상태에 치중할 것은 자기서사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이나 일생 전체나 특정 시점에 대한 성찰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28) 심경호, 『일본의 사술문학 전통에 관하여』, 『민족문화연구』 76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17, 10쪽.

하였다. 그러면서 자서전을 이러한 정의와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 양식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작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안득용 역시 자기서사의 가장 큰 창작 동기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존재의 증명에 있다고 하면서 연구 대상을 자서전의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감안하면 자기서사는 그 장르는 비록 확대되었을지라도 그 중심은 결국 기존의 자전 혹은 자서전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는 삶의 전체나 특정 시기에 대한 성찰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 및 존재 증명에 대한 욕구는 자전의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실제로 박혜숙이나 안득용의 연구를 살펴보면, 편지, 일기, 수필 등 일반적 자전의 영역보다 확장된 양식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대상 작품은 모두 자전적 성향을 띠고 있다. 즉, 적어도 현재까지의 자기서사는 사실상 자전적 글쓰기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기서사는 자전의 개념과 유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2) 자전문학의 의미와 특징

그렇다면 자기서사 같이 오해의 소지를 두지 않고 자전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이와 유사한 양식들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에 따라 현재 고전 연구자들은 자기서사 외에도 자전적 글쓰기, 자전적 서사, 자전문학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전적 글쓰기나 자전적 서사는 최근 서양문학에서 사용하는 ‘Autobiographical Writting’, ‘Autobiographical Narrative’, ‘Self-Narrative’ 같은 용어를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글쓰기나 서사와 같은 술어들은 사실, 역사와 문학의 경계에 놓인 현대 자서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한문학만의 특수성에 따른다면 자전적 글쓰기나 자전적 서사라는 용어보다는 ‘자전문학’이라 일컫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 자서전은 그 이론이 정립될 당시에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개인

의 서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순수문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역사와 문학의 경계 지점에 있는 독특한 양식이라고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사실성보다는 기억에 의한 재현, 허구적 요소의 개입, 자전적 소설의 편입 등에 주목하면서 점차 문학 장르로 인식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서전의 영역이 문화 전반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 장르 규정이나 개념정립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서양에서 자서전의 문학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까닭은 근대 이후 서양문학에서 문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허구성과 예술성을 중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성에 대한 판단 지표는 현대문학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 따라 자서전은 그 사실성만을 강조하면 비문학이 되고, 기억의 재편이나 허구적 재창조에 주목한 경우에는 문학 작품으로 보기도 했던 것이다.

반면에 한문학에서의 문학은 허구성과 예술적 형상화를 중시하는 서양의 문학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일단, 한문학은 허구적 세계보다는 실제 경험의 세계를 중시한다. 소설이나 희곡 등 허구적 양식이 일찍부터 발달했던 서양문학과 달리 한문학은 허구적 양식이 시문의 중핵을 이루지 못했다. 순수 문예로서 창작된 시문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작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상과 감정을 서술하고, 생활주변의 소재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허구적 소설은 그 세계가 점차 확대되었지만 20세기 이전까지는 가공물이라는 이유에서 낮은 대우를 받았다.<sup>29)</sup>

또한 한문학은 작품의 예술적 형상화를 필수로 여기지 않았고 주제설정과 작품 구성, 언어의 기교, 편장의 배치 면에서 특색 있는 작품을 높이 평가해왔다.<sup>30)</sup> 그리하여 논변문, 책문, 주의문 등의 공용문이나 비지문, 연

29) 심경호,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3, 164쪽.

30) 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2001), 위의 책, 12쪽.

보, 실기 같은 역사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언어의 구사, 문장의 기세, 편장과 자구의 배치 등에 따라서 문학성을 부여하고 명문으로 꼽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양문학이나 현대문학과 다른 한문학의 문학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한문학에서 자전적 성향을 띠는 작품들은 그 양식의 어떠하던 간에 모두 자전문학이라 이를 수 있다.

군은 집에서는 특별한 행동이 없었고 조정에서는 뛰어난 충절이 없었다. 독서를 좋아했고 공리(功利)와 기수(機數)의 말들은 유독 싫어했다. 그리하여 그 배움에 있어 이치는 알았으나 그 변화함은 몰랐고 멀리 헤아리는 일은 귀하게 하고 가까운 공적은 천하게 여겼다. 세상 사람들은 혹 그 우월함을 비웃었지만 군은 바야흐로 우월함으로써 스스로 좋아할 따름이었다. 모함과 명예, 총애와 욕됨에 이르더라도 물러나면 그뿐이었다. 망령되게 마음을 쓴 적도 없고 망령되게 나아간 적도 없었으며 망령되게 사람을 사귀는 적도 없고 망령되게 사물을 취한 적도 없었다. 몸을 낮추고 그치기를 잘하였기에 험한 길은 가면서도 스스로 잃은 것이 없었고 또한 상처받을 일도 당하지 않았다. 70세가 되어 상서대학사로 물러나면서 그의 화상에 스스로 글을 지어서, ‘도는 음미함과 음미하지 않음 사이에 있고 몸은 재능과 재능 없음의 사이에서 노닐었다.’고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후세에 나를 찾는 자가 있거든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sup>31)</sup>

위 작품은 조선 후기 문인인 남유용(南有容)의 자찬묘지로 한문학의 문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자전이라 할 수 있다. 남유용의 자찬묘지는 그 구성과 서술 내용 면에서 일반 묘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물의 가문이나 관직생활 등을 자세히 나열하면서 예찬의 성향을 보이는 일반 묘지문

31) 南有容, 『雷淵集』卷22, 『自誌』, “君在家無異行, 立朝無奇節. 好讀書, 獨不喜功利機數之言. 故其學知經而不知變, 貴遠覽而薄近功. 世或笑其迂, 君方以迂自喜. 毀譽寵辱之至, 頽然而已矣. 心無妄用, 足無妄走, 人無妄交, 物無妄取. 能下而善止, 故行險而不自失, 亦不見傷焉. 年七十, 以尚書大學士致事去, 自題其寫真曰, 道在味其無味處, 身游才與不才間. 語人曰, 後世如有求我者, 我在斯矣.”

에 비해 남유용의 작품은 자기가 지향했던 삶의 모습을 140자의 짧은 글에 함축하면서 자아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간결하고 함축적인 언어의 구사와 파격적 구성으로 인해 이 작품은 묘지명임에도 문학성을 갖춘 작품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문학 자전이나 서양의 자서전 같은 양식은 글의 기본 성격상 역사보다는 문학의 영역에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역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객관적 서술보다 주관적 자의식에 입각하여 기록을 재구성하고 자기존재의 가치와 자아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1712년 7월)12일에 서반인 용양위 부사직에 서용되었다. ○ 21일에 호분위 부사파로 강등되어 부직되었다. ○ 8월 20일에 우부승지에 제수되었다. - 대사간의 직임에서 체차된 뒤에 전조에서 한 차례도 의망하지 않았고 좌이(佐貳)가 홀로 정사를 했기에 규례에 따른 은대(銀臺)의 의망에도 뽑히지 못하였다. 이때에 과옥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되어 의심스러운 단서가 차츰 드러나게 되자 이돈(李璵)의 무리가 좌우에서 이를 은폐하고 막았다. 이러한 가운데 성상께서 이들의 간악한 정상을 환하게 통촉하여 여러 차례 하교를 엄히 내리고는 마침내 나에게 이 직임을 제수하며 나를 지지해 주는 뜻을 보였다. - 25일에 패초를 받고 사은숙배하였다. - 내가 과시(科試)의 일을 논한 뒤로 못사람들이 불같이 성을 내며 기어이 나에게 앙갚음을 하고자 하였는데, 사헌부 관원 이세덕(李世德)이 또 임오년(1702) 과시의 일을 끌어다가 이돈을 변론하였다. 선고(先考) 충정공이 실로 임오년의 과시를 주관하였다가 향유의 무함을 받아 금오에서 대명하기까지 하였으니, 지금 굳이 이때의 과시를 끌어다가 말한 것은 나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저 사헌부 관원은 일가의 친족으로서 조금도 거리끼는 바가 없이 공공연하게 선친을 능멸하였으니, 당론이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이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통한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여 누차 소명이 내릴 때마다 번번이 이를 어겼는데, 미처 체직되기도 전에 읍겨 제수하라는 명이 내려졌다.<sup>32)</sup>

위 작품은 조선 후기 문인 이의현(李宜顯)의 자찬연보인 『기년록(紀年錄)』의 일부이다. 이 작품과 같은 연보는 역사기술 장르로서 문학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시나 역사기술 방식에 따라 숙종·경종·영조의 세 왕조 동안에 걸친 작자의 관직 경력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록 가운데 유독 곡진한 서술이 돋보이는 지점들을 보면, 관직 생활 중 자신과 얽힌 문제들에 대한 자세한 정황과 작자의 당시의 심정에 관한 묘사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연보와 같은 역사기술 장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전으로서 창작된 것이라면 작자의 주관에 개입되면서 자기 변론이나 개인적 심회가 강하게 노출되기도 한다. 비슷한 예로 일기와 연보의 복합적 형태를 띠고 있는 이정암(李廷菴)의 『행년일기(行年日記)』 또한 자신의 일생에 대한 기술 외에 임진왜란의 처절한 경험과 참상들이 곡진히 묘사되어 있어 단순한 역사적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기술이나 실용문, 공용문처럼 일반적으로 비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양식이라도 그것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자전으로 재창작된다면 문학성을 평가할 여지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오늘날 자서전을 사실적 기록보다 기억의 재구성에 주목하여 문학의 영역에 두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한문학이 기본적으로 작자의 현실을 바탕으로 창작된 경우가 많고, 비문학 양식이라도

32) 李宜顯, 『陶谷集』卷32, 『紀年錄』, “十二日. 西叙龍驤衛副司直. ○二十一日. 降付虎賁衛副司果. ○八月二十日. 拜右副承旨. 遞諫職之後, 銓曹一不擬望, 而以佐貳獨政之故, 不得拔銀臺例擬. 是時科查既始, 疑端漸透, 整黨左右遮攔. 上於是洞燭其奸狀, 屢下嚴教, 遂有是除, 以示扶植之意. 二十五日. 承牌肅謝. 余既論科事, 衆怒如火, 必欲甘心, 憲官李世德又攙引壬午科以伸整, 忠正公實掌壬午科試, 嘗被鄉儒誣辱, 至於胥命金吾, 今必引此科爲言者, 意在迫窘余也. 憲官以一家之親, 公然凌逼先故, 少無顧忌, 黨論之壞人心術, 乃至此矣. 余不勝痛刻, 屢召輒違, 未及解免而有移除之命.”

그 작법과 구성, 내용 등에 따라 문학성을 부여해왔다고 한다면, 결국 한문학의 작품들은 넓게 보면 모두 자전문학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자전문학만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자전의 개념이나 특성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전문학은 기본적으로 자전에 의거하므로 적어도 그 근간이 되는 전 양식의 문학성만큼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전의 문학성은 대체로 사실에 충실한 서술, 인물의 성격에 대한 선명한 묘사, 인물을 부각시킬 수 있는 소재들의 배치, 대상 인물에 따른 서술법의 변화 등을 거론할 수 있다.<sup>33)</sup>

이러한 기준들에 따르면 자신의 일생을 사실대로 기술한 자서나 자찬 묘지, 자찬연보, 필기잡록류 자전 등의 다양한 산문 작품 외에도 성찰과 경계, 회고와 술회의 성향을 띠는 자잠·자명·자경·자찬·자승·자제문·술회시·자만시 유형의 작품들이 자전문학에 수용될 수 있다. 반면에, 회고보다 현재성이 강한 일기나 기행문은 자전문학으로 보기 힘들고, 이 외에도 일상의 일회성 체험과 견문, 감회 등을 기록한 시문들은 자기 존재 증명이나 자아 정체성 탐구 측면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문학으로 볼 수 없다.<sup>34)</sup>

이상과 같이 자전문학은 자전의 기본적 성격을 따르면서도 한문학의 특수성에 따라 여러 양식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전의 상위개념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진난촌(陳蘭村)은 『중국고대명인자전선(中國古代名人自傳選)』의 서문에서 자전을 개인이 일생을 서술한 일종의 창작 양식이라 정의하면서, 자신의 실제 인생을 사실적이고 예술적으로 서술한 작품을 자전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전기문학의 한 부류라고 하였다.<sup>35)</sup> 가와이 코오조오

33) 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2001), 위의 책, 91~100쪽.

34) 자전문학의 범주와 유형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을 통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35) 陳蘭村 主編, 『中國古代名人自傳選』, 中國青年出版社, 1997, “自傳, 簡要地說是

가 저술한 책의 제목 역시 『중국의 자전문학』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자전 관련 연구에서도 자전문학이라는 용어는 지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전문학이라는 용어는 현대의 자서전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오늘날 자서전의 다양한 양식에 따라 자기서사, 자서전적 글쓰기, 자서전적 서사 같은 용어들이 새롭게 파생되고 있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문면에 그 글쓰기 양상만을 드러낼 뿐, 대상 작품들이 지닌 근본적 의미나 특색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이에 비해 자전문학은 용어 자체에 문학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대의 각종 자서전적 글쓰기 가운데서도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사실성과 역사적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건조한 글쓰기와 차별화된 자전소설이나 자전적 에세이 같이 문학성이 두드러지는 자서전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자서전을 사실정보다는 기억의 재현, 자아의 재창조에 주목하여 하나의 문학 텍스트로 보려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자서전은 사실의 진실보다는 개인의 진실을 추구할 뿐이며, 자기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 결코 객관적인 의미 탐구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다.<sup>36)</sup> 자서전의 규약을 내세운 필립 르퀸 또한 자기 이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전적 소설과 자서전은 그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다고 말하기도 하였다.<sup>37)</sup>

자전문학은 이러한 최근 자서전 연구의 추세에도 걸맞는 용어로서 현대 문학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個人自敘生平的一種寫作樣式。能夠真實地而且藝術地記敘自己的實際人生的作品，可稱為自傳文學，它屬於傳記文學的一類。”

36) 유희식, 『자서전, 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자기표현의 기술』, 민음사, 2015, 69쪽.

37) 이가야(2008), 위의 논문, 285쪽.

#### 4. 결론

지금까지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작품들을 지칭하는 개념어로서 자전과 자전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사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비단 한문학 영역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대의 자서전 연구와도 접목되어야 한다. 앞서 살폈듯이 현대의 자서전은 과거의 정형적 개념을 탈피하여 그 영역이 소설, 시, 수필, 일기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근래 들어 한문학의 자서전적 작품들이 본격 소개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오늘날의 자서전 연구는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뛰어넘고 고전과 현대의 다양한 글쓰기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어를 마련하는 일은 양 문학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도의 역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단편의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모두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일단 한문학의 용례와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자전문학 용어를 고찰하면서 부차적으로 현대문학과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고가 ‘시고’라 이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본고는 우선 현재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서전, 자전, 자기서사, 이 세 용어를 중심으로 각각의 어원과 기본개념, 용어의 용례와 범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론적으로 자전 용어의 사용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확장되고 있는 자전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어로서 자전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전문학은 자전보다 상위 개념어로서 한문학의 특수성과 자전이란 장르의 기본적 성격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서사나 자전적 글쓰기 같은 용어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전이라는 용어가 현대에 자서전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오늘날 자서전을 문학텍스트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자전문학이라는 용어는 현대문학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작품에 대해 용어의 역사가 한 세기에 지나지 않는 자서전이나 자기서사보다는 한문학의 전통적 양식과 특색을 반영한 자전과 자전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혹자는 자서전이라는 용어가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근대 자서전/현대 자서전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자서전이라는 용어가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편의상 이렇게 불러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학술적으로는 그 개념과 용례 등을 따져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립 르죈은 자국에서 18세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자서전을 기존의 인접 양식들과 구분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서전의 이론을 새로 수립하였다. 본고의 취지 역시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 연구자들조차 자서전과 자전을 관습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해당 분야 연구자로서 연구 용어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정립 과정을 통해 관련 연구의 영역도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아직까지는 자전문학 부류에 대한 개념 정의나 용어 사용에 대한 연구자 간의 합의가 미진한 상황이지만 자전문학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고 연구의 분야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본고와 같은 연구들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웃한 중국이나 일본의 자전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역량을 갖춘 연구자의 등장을 기대하면서 논의를 갈무리한다.

## 참고문헌

- 南有容, 『雷淵集』, 한국문집총간 217집.  
李宜顯, 『陶谷集』, 한국문집총간 181집.  
李廷龜, 『四留齋集』, 한국문집총간 51집.  
郭登峰, 『歷代自敘傳文鈔』, 商務印書館, 1965年版.  
杜聯誥, 『明人自傳文鈔』, 藝文印書館, 1977.  
陳蘭村, 『中國古代名人自傳選』, 中國青年出版社, 1997.  
鹿野政直·佐伯彰一 監修, 『日本人の自傳』(全23卷·別卷2), 平凡社, 1981~1982.
-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1~188쪽.  
심경호,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3, 1~342쪽.  
\_\_\_\_\_, 『내면기행 : 선인들, 스스로 묘비명을 쓰다』, 이가서, 2009, 1~768쪽.  
\_\_\_\_\_, 『선인들의 자서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가서, 2010, 1~663쪽.  
안득용, 『한국 고전 자기서사 연구』, 태학사, 2019, 1~395쪽.  
유호식, 『자서전, 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자기표현의 기술』, 민음사, 2015, 1~301쪽.  
임순철, 『자서전, 나와 세상의 기록』, 한국기록연구소, 2016, 1~202쪽.  
조수학, 『韓國의 托傳과 假傳』,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1~393쪽.  
가와이 코오조오 지음·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1~319쪽.  
계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지음,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1~840쪽.  
진필상 지음·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2001, 1~386쪽.  
필립 르죈 지음·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1~424쪽.  
Edited by Robert Folkenflik, *The Culture of Autobiograph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1~272.
- 고은, 『士大夫 自傳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78쪽.  
김승호, 『고려 佛家의 自傳의 글쓰기와 그 양상 : 書信 및 碑銘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121~146쪽.  
김종섭, 『中國古代文學의 自傳에 關한 研究』, 『중국문학』 26, 한국중국어문학회, 1996, 47~68쪽.

- 류은희, 『자서전의 장르 규정과 그 문제: “역사기술”과 “시”로서의 자서전』, 『독일문학』 84, 한국독어독문학회, 2002, 323~347쪽.
- 문지희, 『자전문학, 그 혼종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외국문학연구』 4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2, 53~84쪽.
- 박진성, 『조선후기 자전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1~225쪽.
- \_\_\_\_\_, 『17세기 동아시아 자전문학의 특징적 국면(I)-창작 배경 및 자아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75, 한국한문학회, 2019, 331~386쪽.
-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3~349쪽.
-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7~30쪽.
- 심경호, 『일본의 자술문학 전통에 관하여』, 『민족문화연구』 76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17, 9~50쪽.
- 안대회, 『조선 후기 自撰墓誌銘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31, 한국한문학회, 2003, 237~266쪽.
- 안득용,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自傳의 敘事의 창작경향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51, 2013, 197~238쪽.
- \_\_\_\_\_, 『조선후기 자서전의 특징적 局面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56, 한국한문학회, 2014, 423~458쪽.
- \_\_\_\_\_, 『자아의 유형에 따른 전근대 자서전의 분류와 그 형성 배경』, 『고전과 해석』 17,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4, 265~304쪽.
- \_\_\_\_\_, 『필기체(筆記體) 자기서사(自己敘事)의 자기형상(自己形象)과 자기변명(自己辨明): 이식(李植)의 『서후잡록(敘後雜錄)』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9~52쪽.
- \_\_\_\_\_, 『자탁전(自托傳)의 각 계열에서 보이는 자기인식의 형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71, 한국한문학회, 2018, 45~84쪽.
- 이가야, 『자서전 이론에 대한 몇 가지 고찰: 필립 르죈의 이론과 그 반향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3,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8, 283~311쪽.
- 이은식, 『고려시대 자서전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145쪽.

임준철, 『支流와 還流 : 自傳文學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自挽詩』, 『민족문화연구』 7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51~99쪽.

정우봉, 『조선 후기 自撰年譜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59, 한국한문학회, 2015, 89쪽~122쪽.

제여매, 『자서전의 이론과 변천』, 『독어교육』 76,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16, 203~225쪽.

張新科, 『古代自傳文的文學價值』, 『唐都學刊』 8, 1992, 71~75쪽.

揖斐 高, 『自己イメージの視線 -林鶯峰の「一能子伝」について-』 『日本文學』 51, 日本文學協會, 2002, 52~65쪽.

ヴォルフガング シャモニ, 『日本十七世紀の自伝、その一側面』, 『世界の日本研究』, 2017, 18~34쪽.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biographical literature(自傳文學) term

Park, Jin-sung

This paper discusses the validity of the terms, “Auto-biography (自傳)” and “Autobiographical Literature (自傳文學)” and proposes to use them as conceptual terms for the autobiographical narrative of Chinese literature.

First, w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compared its etymology, concepts, usage, and categories, using the words “Autobiography (自敘傳)” and “Auto-biography (自傳),” which are used most commonly by researchers. Thus, based on the tradition of terms, acceptability, flexibility, and universal usage in East Asia, we determined that it is more reasonable to use the word Auto-biography (自傳) than Autobiography (自敘傳).

Next, we discussed the words “Self-Narrative (自己敘事)” and “Auto-biographical Literature,” both of which comprehensively refer to the various writing styles of the recently expanding autobiography. “Self-Narrative”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over all self-writing styles of Auto-biography (自傳), essays, letters, and diaries, but in reality, it is a different autobiographical writing style. Self-Narrative is an over-expanding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type of auto-biography.

However, “Autobiographical Literature (自傳文學)” follows the basic nature of Auto-biography(自傳)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over various styles due to the wide literary nature of Chinese literatur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as an advanced term for Auto-biography (自傳). Moreover, the term Auto-biography(自傳) is used in the same sense as modern Autobiography(自敘傳), and given the current tendency to understand autobiography as literary text, the term Autobiographical

Literature(自傳文學) can be used sufficiently in modern literature.

**Key Words** Autobiographical Literature(自傳文學), Autobiography(自敘傳),  
Auto-biography(自傳), Self-Narrative(自己敘事), Autobiographical Writing,  
Biography

논문투고일 : 2021.01.26

심사완료일 : 2021.02.08

게재확정일 : 2021.02.09